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11월 2호

◈ 주요 동향

1. 생산 공장의 탈중국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사슬 중단이 가져온 "중국+1" 전략
   部分工厂将搬出中国， COVID-19导致的供应链中断强化了"中国+1"战略

2. 양산항 4기 완전자동화 터미널 신규 설비 추가 도입
   洋山四期全自动化码头新一批设备交付使用

3. 칭다오 완전자동화 터미널 2개 신설 선석 검수 통과
   山东港口青岛港全自动化码头2个新建泊位通过对外启用验收

4. 난사항, 동남아 노선 증설
   广州港南沙港区新增东南亚航线

5. 골든오션, 2021년 건화물 시장 강세로 예측
   Golden Ocean：干散货市场2021年将迎来牛市

6. 장강경제벨트개발 : 신(新)시대, 신(新)구조 , 신(新)사명
   长江经济带发展：新时代、新格局、新使命

7. 중구물류, 때를 기다리며 천천히 기회를 모색하다
   中谷物流：静待时机厚积薄发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8. 상하이항, 스마트 VGM 도입, 중량 초과시 TEU당 최고 8,000달러 벌금 부과
上海港智能VGM上线，超重最高罚8000美金/箱！
https://mp.weixin.qq.com/s/caDTKt8LsmJKWJyazzv1gw

9. Wanhai, 2020년 3분기 최근 5년간 최고 실적 기록
万海航运三季度获利近18亿创5年新高
https://news.mysteel.com/20/1120/08/F72F8D8ACDEE2193.html

10. 2020년 1~3분기 주하이 수상운송경제 전년 동기 대비 68.2% 성장
前三季度珠海水上运输经济同比增长68.2%
http://www.zgsyb.com/news.html?aid=574416

11. CMPort, 저우산 Ro-Ro 터미널 정식 개장
招商港口舟山滚装码头正式开港首航
https://www.cnss.com.cn/html/gkdt/20201113/338552.html

12. 2020년 저우산항에서 예인된 선박 수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만척 넘어
舟山港域今年引航船舶已超1万艘次！同比增长13.1%
https://www.cnss.com.cn/html/gkdt/20201126/338715.html

13. 2020년 1~10월 광시 베이부완항 화물처리량 전년 대비 19.6% 증가한 2.2억톤 기록
1—10月广西北部湾港完成货物吞吐量2.22亿吨 同比增长19.6%
https://www.cnss.com.cn/html/gkdt/20201119/338630.html

14. 하이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콜드체인 식품 추적 플랫폼 구축 예정
海南建立基于区块链技术的冷链食品溯源平台
https://www.sohu.com/a/434271564_115402

작성자 :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육천란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생산 공장의 탈중국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사슬 중단이 가져온 “중국+1” 전략

■ 세계 17위 제3자 물류회사(3PL)로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톨그룹(Toll Group)이 최근 제조업 및 소매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세계의 주요 생산 공장들이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점점 더 이전할 것으로 예상됨

– 톨그룹 고객사의 1/4은 향후 3년 이내에 일부 업무에 한해 중국철수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올해 초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에 집중된 생산 공장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멈춰서는 등 제조업과 국제 해운업계가 수 주 동안 멈추는 바람에 공급망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이에 기업들은 “중국+1”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함

– 이번 조사는 호주,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등의 34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발생한 생산 및 판매유통 문제로 관련 업무 대체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실 “중국+1” 전략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시작됨

– 중국의 인건비, 운송 비 등 운영원가 상승으로 많은 기업이 몇 년 전부터 생산 대체국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트럼프정부의 대 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소비자가격 상승 등이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1” 생산전략을 추진케 함

– 응답 기업 3곳 중 1곳은 수출 대체시장으로 베트남을 고려하고 있고,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38%의 기업은 남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기타지역을 고려중인 것으로 응답함

■ 톨그룹 이사 토마스는(Thomas Knudsen)는 코로나19가 기업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규모에 따라 다르며 아시아 기업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밝힘

– 그는 또 향후 몇 개월 동안 기업들이 점차 새로운 곳으로 업무를 이전할 것이며, 이중 규모가 작고 유연한 기업들은 이미 공급사슬의 노드(node)를 바꾸기 시작함

(网易, 2020. 11. 14.)

https://dy.163.com/article/FRD0AAQT0514C1PI.html

양산항 4기 완전자동화 터미널 신규 설비 추가 도입

■ 2020년 11월 12일, ZPMC(振华)는 양산항 4기 완전전자동화 터미널에 신규 자동화 설비를 인도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화 QC 5기, ARMG 20기 및 AGV 30대가 정식 투입됨

■ 2019년 7월 본격 제조에 들어간 이 설비들은 코로나19 및 태풍 등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6월 3일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10월 25일 55대 설비의 시범 운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짐

■ ZPMC는 지금까지 양산 4기 완전자동화 터미널에 21기의 자동화 QC와 108기의 ARMG 및 110대의 AGV를 순차적으로 인도함

- 2020년 9월 SIPG와 ZPMC가 체결한 양산항 4기 완전전자동화 터미널의 마지막 회차 설비 구매 계약에는 자동화 QC 5기, ARMG 11기와 AGV 25대가 포함됨
- 마지막 회차 설비들은 현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출하할 계획임

(中国港口, 2020. 11. 13.)

http://www.chinaports.com/portlspnews/6386

칭다오 완전자동화 터미널 2개 신설 선석 검수 통과

■ 2020년 11월 10일, 산동성정부항만사무소, 칭다오세관, 산동출입국검역소, 산동해사국 및 산동성교통운수청 등으로 구성된 산동성 검수팀은 칭다오항 완전자동화 터미널 107번 및 108번 선석에 대한 검수 절차를 완료하고 대외 오픈에 동의했으며, 성 정부의 승인 후 발표할 예정임

– 현장 검사와 전문가 심사를 마친 검수팀은 신규 선석이 이미 대외 가동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으며, 대외 오픈 검수 회의록에 서명을 함

■ 107번 및 108번 선석은 길이가 660m, 후방 폭은 784m이며, 면적은 37만㎡로 두 선석 모두 20만톤급 컨테이너 전용 선석임

– 두 선석은 1기 공정모델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업그레이드 개조한 것으로 1기 공정에 비해 2년여의 시간을 단축함

– 연간 설계 처리능력은 170만TEU로, 9기의 자동화 더블 트롤리 QC와 28기의 ARMG 및 45대의 AGV가 투입되며, 현재 QC의 최고 작업효율은 44.6박스/시간으로 업계 선두 수준임

출처: 腾讯网, https://new.qq.com/rain/a/20201111A0643C00(검색일: 2020.12.26.)

(航运界, 2020. 11. 18.)

https://mp.weixin.qq.com/s/_tFazPFaHqhGCAEwWElEwQ

난사항, 동남아 노선 증설

■ 2020년 11월 15일 Wan Hai, CMA CGM, ONE 그리고 고려해운 등 선사가 공동으로 운항하는 KCC 노선(인도네시아 노선)를 운항한 '자이춘룬(载春轮)' 호가 난사 3기 터미널에 무사히 정박했으며, 이로써 난사항은 동남아 노선 한 개를 증설하게 됨

■ Wan Hai, CMA CGM과 ONE이 각각 4,2000TEU급의 컨테이너선 1척을 KCC 노선에 투입하기로 함

- 해당 선박들은 홍콩-난사-셔커우(蛇口)-쓰수이(泗水)-삼보오롱(三宝垄)-자카르타-포트 클랑항을 순차적으로 기항하며, 동 노선은 각 기항 도시 간 수출입 직항 서비스를 제공함
- 난사에서 쓰수이까지 수출의 경우 선적 스케줄이 8일 소요되며, 포트 클랑항에서 난사까지 수입 스케줄에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아 스케줄이 짧고 안정적인 노선임

■ KCC 노선의 개통으로 현지 기업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 시 노선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광저우 지역의 일용잡화, 중산(中山) 및 순더(顺德) 지역의 가전, 포산(佛山)의 도자기 및 기계설비 등 품목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남아 재생용 펄프에 대한 수입 수요에 부응하고 종이공장 생산용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경제 및 민생물자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음

■ 올해 난사항의 수입 화물은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수입 냉동 제품, 재생 펄프, 목재, 플라스틱 과립 등 주요 화물 공급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큰 성장을 실현함

(中国远洋海运集团有限公司, 2020. 11. 18.)

https://mp.weixin.qq.com/s/Z1qAMQx1U2_xzA37-TT8kw

골든오션, 2021년 건화물 시장 강세로 예측

■ 오슬로에 본사를 둔 건화물 선사 골든오션(Golden Ocean)은 2021년 및 이후의 건화물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추가 봉쇄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한 실정임

■ 골든오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건화물 수송능력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9월 순 증가율은 3.1%로 연초 예측한 4.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선박의 대량 주문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21년 벌크선대 성장률은 3.9%에 이르고 2022년에는 1.2%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함

■ 골든오션에 따르면, 2021년에는 시장 수요가 개선될 전망임

- IMF는 2021년 전세계 GDP가 5.2%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중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GDP 증가율은 8%를 넘을 것으로 예측함

■ 상기 전망에 따라 골든오션은 2021년 대량의 수송능력을 현물시장, 특히 케이프사이즈 선박 시장에 투자할 것이며, 그 이유는 케이프사이즈 선박 위주의 건화물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골든오션의 벌크선대는 78척이고 이 중 사선은 68척임

■ 골든오션의 3분기 순 수익은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3,700만 달러보다 200만달러 증가함

- 골든오션의 최고경영자 Ulrik Andersen은 지난 2020년 3분기 실적은 가격협상과 대형선박 시장에 집중해 얻어낸 전략적 우세가 반영되었다고 밝힘

(海事服务网, 2020. 11. 23.)

https://www.cnss.com.cn/html/hyqy/20201123/338662.html

장강경제벨트개발 : 신(新)시대, 신(新)구조 , 신(新)사명

■ 2020년 11월 14일, 시진핑 총서기는 난징에서 열린 제3차 장강경제벨트발전좌담회(长江经济带发展座谈会)에서 장강경제벨트와 중국경제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담화를 발표함

- 이번 회의는 13·5 목표 실현과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제2의 100년 계획에 돌입하는 시기와 맞물리며, 전 세계 정치와 경제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큼
- 2016년과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충칭과 우한에서 열린 동 좌담회에서 장강경제벨트개발을 국가급 중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0년만의 대격변을 맞아 장강경제벨트의 전략적 지위가 한층 더 높아짐

■ 담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생태 거버넌스' 와 같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강조했으며,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생태환경 보호와 회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판치(一盘棋, 바둑 처럼 전체가 연결되있다는 의미) 사상을 고수해 장강 상·중·하류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고, 장강 하류의 자금과 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상류로 질서 있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또 장강경제벨트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전장이자, 주력군이라고 강조하며 이곳의 인구 및 GDP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장강경제벨트가 더 넓은 범위와 분야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 장강경제벨트개발의 추진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면서 경제의 질적 발전과, 기술혁신을 도모할 것과 '쌍순환' (국내+대외), '일대일로' 건설 및 대외개방의 새로운 엔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 실물경제에 역점을 두고 혁신적인 제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분야와 핵심 제품들을 확보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밖에도 장강 문화의 전승과 보호를 강조했으며, 생태환경 분야의 방향도 제시함

- 장강은 중화문명의 상징으로 장강 문화를 잘 보존하고 도농 발전을 함께 결합시켜 역사 문화 지역을 잘 복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할 경우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오염시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등, 동 회의에서는 생태환경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후 장강경제벨트 생태계 관리의 비용 보상 및 참여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中国水运网, 2020. 11. 22.)

http://www.zgsyb.com/news.html?aid=574727

중구물류, 때를 기다리며 천천히 기회를 모색하다

■ 2020년 9월 25일, 중구물류(中谷物流)가 A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국내무역 컨테이너 업계의 최초 IPO기업으로서 약 15억 위안(약 2,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함

- 2019년 중국 전역의 항만에서 처리된 중구물류의 컨테이너는 2,200만TEU로, 이는 중국 전체 국내 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의 1/5을 초과하는 수치임
- 중구물류의 첫 발행가는 주당 22.19위안(약 3,800원)으로 총 6,666만 6,700주를 발행했으며, 첫날 26.63위안으로 마감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미국대선 이후 반등세를 보임

■ 중구물류는 17년 역사를 기반으로 국내 순환의 주체가 되고, 국내 및 국제 '쌍순환' 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 중구물류 관계자는 앞서 인터뷰에서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 위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벌크 컨테이너의 운송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구물류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동기대비 2.01% 늘어난 71억 6,700만 위안(약 1조 2,200억원)을 달성함

- 2019년 12월 31일자 Alphaliner의 보고에 따르면 중구물류의 종합 수송능력은 전 세계 13위, 중국 2위로 조사됨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중구물류가 운영중인 컨테이너선은 112척이며, 총 248만 6,500 DWT에 달함
- 2020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중구물류의 주 영업 분야는 컨테이너 물류 서비스로 매출의 99.99%를 차지함

■ 중구물류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샤먼의 업무량을 늘리고, 남북물류 대동맥을 원활케 하여 '쌍순환' 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샤먼시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더 빠르고 가까운 해상 항로를 발굴해 서비스 질을 제고 할 예정임
- 투자자 모집 설명서에 따르면, 중구물류는 앞으로 '일대일로' 건설과 물류업 관련 정책에 순응하며 보다 나은 컨테이너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육로, 철로, 수로' 가 연계된 일체화 물류 플랫폼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또한 친환경, 저탄소 컨테이너 물류 방식을 채택하고 효율을 높이며 산업사슬을 상 · 하방을 확장할 계획임

(中华航运网, 2020. 11 . 19.)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11/t20201119_1345862.shtml